

거사들이 모여만든 결사 도량 삼성암

조선후기 거사불교와 삼성암(三聖庵)

불교를 배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출가와 재가의 차이였다. 수행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가불자라 해도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붓다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그것으로 미루어 불 때 양자의 차이는 누가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이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의 고정화된 이념의 반전이다. 이렇게 시작한 대승불교는 출가와 재가 모두 붓다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 신선한 모습이 이웃 나라에 전해져 크게 확장됐다. 이런 대승불교는 출가와 재가가 모두 융성할 때 불교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불교를 탄압하고 교단이 쇠락해지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생력을 갖는다. 지도자가 없어도 그들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기도하며 신앙한다. 중국의 경우 청나라 이후 교단이 미흡해지면서 나타난 것이 거사불교이다. 이것은 수행자의 지도 없이 남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 활동이다. 중국이나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번성할 때도 남자 신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사불교라 하지 않는다. 불교가 탄압받거나 교단이 쇠락해져 신앙 지도가 어려워질 때 생겨난 신앙 활동을 거사불교라 한다.

한국에서 거사불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조선후기이다. 이때에 이르러 교단 차원의 불교활동은 미약했다. 그 이유는 불교가 사회적 위치를 상실하고 산중시대(山中時代)라는 한계적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 불교는 종단의 합법성을 박탈당해 종명마저 없어진 채로 산중에 은거하면서 선교를 겸수하면서 지냈던 무종산승시(無宗山僧時代)였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종단을 중심으로 신앙 활동을 전개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사들의 개별적 신앙 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 거사불교의 모습을 전하는 것은 여럿이



삼성암이 자리한 삼각산 일대

다.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은 거사들 스스로 결사를 맺고 진행한 것이다. 그것이 고종 9년(1872)에 한성에 사는 거사들이 관세음보살의 신묘력을 감응하고자 결성한 묘연사(妙蓮社)이다.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결사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결사 대부분의 맹주는 당대 이름 있는 고승들이었다. 그런데 묘연사 결사는 사상적인 배경으로 채택한 관음신앙으로 특이하지만 결사의 주체와 맹주가 거사인 것도 특별하다.

묘연사가 시작된 것은 고종 9년(1872) 11월이었다. 그 후 고종 12년(1875) 여름까지 4년에 걸쳐 삼각산 주변의 암자와 거사의 집 등 일곱 곳을 옮겨 다니며 모두 11번의 법연을 가졌다. 일곱 곳 가운데 지금까지 사적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 지금의 삼성암이다. 이곳은 1872년 봄 창건됐고, 창건주 역시 거사였으니 결사의 모임 장소로는 적격이었을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모인 묘연사 거사들은 법연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전념하고 상서로운 감응을 기대했다. 마침내 그들의 서원대로 관세음보살의 감응이 실현했고, 범주인 보월거사가 이를 설했다. 뒤에 이것을 정리한 것이 '관세음보살묘응시현제증감로(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이다. 보통 '제증감로'라 불리는 이 책은 고해자우품(苦海慈雨品)에서 전불가설품(轉不可說品)에 이르기까지 10품 4권인 데 1·2권은 보광·인담 거사가, 3·4권은 해월·현허 거사가 기록했다.

한성 묘연사, 결사 사찰로 유일하게 남아

산중불교에서 거사불교로 변모했던 곳으로

도가적 특색도 반영했던 관음신앙 중심 사찰

절망의 극한 상황에서 불교계 방향 제시해 줬

로'라 불리는 이 책은 고해자우품(苦海慈雨品)에서 전불가설품(轉不可說品)에 이르기까지 10품 4권인 데 1·2권은 보광·인담 거사가, 3·4권은 해월·현허 거사가 기록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음신앙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것은 법문이 설해지는 범주와 대중과의 관계 등에서 신비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관음신앙을 현세적 신앙이라고 한다. 제증감로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경향보다는 내세의 미타정도를 희구하는 신앙관과 선정(禪淨) 결합의 경향, 도가적인 성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제증감로의 도가적 특색은 발간의 서문에서 크게 드러난다. 결사가 끝난 뒤 3년이 지난 1877년 유훈 하려고 내용을 교각(校刻)했다. 이때 부유제군(孚祐帝君) 여순양(呂純陽)이 무상단에 하강해 서문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서문을 쓴 여순양은 당말의 인물로 처음에는 연명술 등 선도를 배웠다. 그 뒤 호북성 황룡산에서 황룡회기(黃龍誨機)를 만나 법음을 묻고 답하면서 그의 제자가 된 여동부(呂洞賓)를 말한다. 그런데 황룡회기가 황룡산에서 교화하던 때는 당나라 천우(天祐: 904-907) 연간이다. 이대로라면 여순양은 거의 1000년이 넘는 시대를 초월해 하



삼성암에 전해오는 관음신앙은 조선 계급 사회에서 평민이나 하층민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불교 근본의 역할의 발로였다.

강한 다음 서문을 지은 것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화적 내용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앙적 경이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며, 그것은 묘연사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모두 고종 15년(1878) 인가 거사가 쓴 제증감로의 연기문에 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조선 후기의 거사불교운동이 시대적 여건에 의해 일반적 인 관음신앙을 표방하기보다는 신비적인 도가적 취향과 내세적인 신앙관 그리고 선정 결합과 같은 혼합적 성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소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묘연사와 같은 결사를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먼저 이런 거사불교를 통해 조선후기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묘연사가 결성된 1872년은 조선후기에 해당된다. 이 시대의 사회상은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절망의 극한상황이다. 정치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백성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웠다. 이 같은 세계는 고통의 세계이다. 실제로 그와 유사한 모습이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칭명한다면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관하시어 모두를 해탈케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서원에 의해 생해 서원에 의해 살고 항상 서원을 실천해 가는 보살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고난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본원으로 하고 중생의 고뇌를 없애 안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음신앙의 특징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는 묘연사 결사는 개항을 전후한 시기 종단의 활동이 미비한 상황에서 불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관을 유지하고 아울러 중생들의 구제를 도모해 불교를 지속시킨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지니고 있던 거사들의 신앙관이 표현된 점에서 당시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묘연사 결사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종단 주도의 신앙형태가 아니고 사찰단위의 순수한 신앙 운동에 속한다. 신앙결사가 국가의 의해 주도되면 결사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고 국가를 위한 하나의 조직체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인 서원의 완성이 아닌 왕실을 위한 기복연명과 제재조복(除災招福)에 많은 비중을 두는 기복단체(祈福團體)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묘연사의 경우는 그 소속인원의 부유나 신앙적 경향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되지 못한다. 민간적인 차원의 성격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시 대승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불교가 발전하려면 교단이 국가적인 정책과 일치돼 사회를 주도해 가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묵묵히 자신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대중적 신앙은 그 부족함을 메우는 방편이 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묘연사 결사가 현실의 고통을 없애고 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세적 구원 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함께 그 시대의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선사회와 같이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평민이나 하층계급이 구제된다는 사상은 그들로 해금 내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마치 계급이 소멸된 듯 한 번 열 속 에 지낼 수 있는 기쁨을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일반대중들이 신앙에 의지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일 것 이다.



김경집/전주국대 교수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탑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탑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땃대!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워트」 1,049,000원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02)365-7747